

| | |
|-----------------------------------|-----------------------------------|
| ↑ 코스피 2558.13 (+29.21) | ↑ 코스닥 746.95 (+9.05) |
| ↑ 금리 (미국 9년) 2.560 (+0.019) | ↓ 환율 (원-달러) 1452.85 (-8.95) |

美, 加·멕시코 관세에
국내 수출기업
전략 전면 수정
02



금융위기 악몽 재현되나... 기업 신용 줄강등 '경고음'

美 관세전쟁에 고환율 등 악재 S&P, LG화학·한화토탈 신용 ↓ 무디스, 삼성 등급 전망 '부정적' 에코프로·고려아연 등도 '하향' 유동성 위기 땐 하반기 더 위험

#.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다. 지난해 11월 말 총차입금은 5조4620억원, 부채비율은 1408%에 달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최근 한층 격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잦아들지 않는 기업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고환율에 원자재값·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실적까지 악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했던 무더기 등급강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등급 줄강등 사태가 유동성 위기로 번진다면 투자나 인수합병(M&A)은 물론 실적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과 채권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장기화하는 글로벌 화학 산업 침체와 수익성 악화를 등급 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S&P는 전날에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

과 채권 등급을 'BBB+'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LG화학의 화학 부문은 중국발 공급 과잉, 수요 부진에 따른 업황 악재, 무역 긴장 전망 등으로 2025년에도 업황 사이클의 바닥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했다. S&P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해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재무지표는 점진적인 설비 투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용 강등 위기에 몰린 기업도 많다. 한국신용평가 기준 '긍정적' 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10곳이지만,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20곳이다.

신용등급 'Aa2'인 삼성전자는 무디스 평가에서 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무디스는 전망을 낮춘 이유로 기술경쟁력 부진과 낮은 영업이익률을 들었다. 2차전지 소재 회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고, 신용등급 'AA+'인 고려아연도 최근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S&P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신용등급 유지 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등급이 악화된 기업 실적과 침체한 자금 조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콘서트 하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공간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복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194곳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총합은 265조605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282조880억원)보다 5.84% 줄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내수부진,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잠재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무주택 한정' 등 규제 전 막차 '줍줍' 2가구에 16만명 몰렸다

5월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시행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대거 몰려

아파트 분양시장은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수요가 집중되며 분위기가 뜨겁다. 수년 전 분양 당시의 분양가가 똑같이 적용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데다 무주택자 한정 등 관련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가세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복수원자이목지구 대방 디에르 더리체 I (3차)'와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2단지' 등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청약이 가장 몰린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들어선 복수원자이 렉스비아다. 최고 29층, 2607세대 규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2세대 모집에 16만명이 넘게 신청했다. 전용 59㎡A 1세대에 7만8096명, 84㎡A 1세대에 8만6273명 등이다.

일단 분양가가 시세 대비 수익원 이상 싸다. 분양가는 59㎡ 4억7380만원, 84㎡ 5억9120만원으로 지난 2021년 첫 분양 당시와 같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59㎡는 작년 10월 7억원에 거래가 됐다. 84㎡의 경우 실거래는 없

었지만 호가가 모두 9억원 이상이며, 올해 1월 5억7000만원에 전세 임차계약이 이뤄지며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규제 전 당침을 노리는 수요도 몰렸다는 분석이다.

복수원자이 렉스비아의 경우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정하고도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면서 별다른 제한도 없었다.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가능했으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에 위치한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에도 각각 1만6128명, 1만1156명이 청약했다. 상한제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운정중앙 구간까지 개통된 것도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의 분양가는 전용 84㎡가 4억3800만원이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의 분양가는 59㎡A와 84㎡B가 각각 3억9550만원, 4억6320만원이다. 두 곳 모두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청약 제한은 없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면 모두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기금 50조 신설

정부가중요국들의 첨단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산업계에 초저리대출 지원은 물론,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이

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원칙으

로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자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 ▲ 더불어민주당, 당·지지사 연결하는 'AI민주' 만든다 /사진 뉴시스
- ▲ 국방장관 직무대행, 호주 국방장관과 통화... 방산협력 등 논의

- ▲ 북한 해커 사상 최대규모 탈취 암호화페 빠르게 현금화
- ▲ 홍준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인형에 불과"

- ▲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끊겨... 29년 만에 처음
- ▲ 올해 2058억 규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